

지역 소식통

정읍시, 올부터 기초연금 최대 32만3180원으로 인상

정읍시가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80만 원(2022년 기준)에서 202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12.2%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월 소득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 단독가구 어르신은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다.

월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와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한 결과다. 또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높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고창군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 편의를 위해 2023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사업대상으로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 단지다. 건물도색,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및 용벽·절개지 등의 보수공사로 공동주택단지의 안전관리와 공용시설물의 정비할 수 있다.

2023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예산은 1억8000만원으로 8개단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2월10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갖춰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주거복지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은 2019년부터 공동주택 단지내 보도블럭보수, 옥상방수 등의 사업을 추진, 입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대형사업 조기 추진 건의

심덕섭 고창군수, 국토부 방문 드론통합지원센터 유치·노을대교 등 꼼꼼히 챙겨

심덕섭 고창군수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대형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25일 오후 심덕섭 군수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과 김동현 첨단항공과장,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확장장 등을 차례로 면담하고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의 반영과 계획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역경제 활성화라는 최적의 여건인 만큼 반드시 고창에 유치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노을대교 4차선 확장' 필요성을 설명하는데도 집중했다. 심 군수는 국토부에 노을대교가 올해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향후 대교의 물류·교통·관광 등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차선 확장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밖에 고창을 대변할 이원재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은 지역발전엔 큰 역할을 기대하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부처 차원에서의 조인과 컨설팅을 요청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민선8기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대형 사업들이 하나둘 추진되어가고 있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앙정부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해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2023년 정읍사랑 상품권 600억원 규모 발행

1인당 월 100만원 10% 할인 지역경제 활성화 물꼬 기대

정읍시가 골목 상권 회복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도입한 정읍사랑 상품권을 올해 6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은 그대로 유지되며,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단, 연말까지 상품권의 안정적인 발행을 유지하고,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것을 방지해 더 많은 시민에게 정읍사랑 상품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연간 구매 한도는 800만원으로 정했다.

정읍사랑 상품권은 모바일형과 카드형 두 가지 형태로 발행된다. 구매는

NHCard CHECK HONG GIL DONG 정읍사랑상품권

모바일 앱(CHAK) 또는 농협과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등 지역 내 46개 금융기관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가맹점 등록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구매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음식점과 마트, 미용실, 주유소 등 4600여 개 가맹점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위도면, 마을평안·풍어 기원 위도띠뽀놀이 공개행사 개최

매년 정월 초사흘날에 열리는 국가무형문화재 '2023 위도 띠뽀놀이' 공개행사가 지난 24일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에서 열렸다.



사)국가무형문화재 위도 띠뽀놀이 보존회(보존회장 김우현)가 주최하고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단 부안군 후원으로 열린 위도 띠뽀놀이 행사는 풍랑과 강설 등의 기상 악화로 외부인의 참여가 없는 가운데 김현구 위도면장을 비롯해 최소한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진행되었다.

이날 170여년 전부터 위도주민들이 임금 진상품인 칠산조기가 많이 잡히는 대리마을 앞 칠산바다에 산다는 용왕에게 만선과 행복을 적는 띠지와 오

색기 허수아비들과 어선 모양의 띠뽀를 제작해 바다에 띄우는 풍어제로 유명하다.

이날 띠뽀놀이가 행하는 오전 8시 띠뽀놀이전주관 앞마당에서 풍물패의 마당굿으로 시작하여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원당에 올라 독축과 원당굿, 마을 당산과 바닷가 및 마을 뒤편 산자락 주산불기와 마을앞 부두에서 용왕 행사가지만 진행이 되었으며, 당초 예정되었던 띠뽀 띄우기 행사는 파도와 눈발이 거세 25일 오후 4시에 진행 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을 위해 기부할 수 있어 기뻐”

‘부안의 딸’ 미스트롯 김태연양,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 2’에 출연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부안의 딸’ 김태연양이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부안군에 기탁했다.



이에 따라 김태연양은 부안군 고액 기부자 1호 이정권(주)대우글로벌 대표, 2호 가수 진성씨에 이어 3호 고액기부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미성년자로서 보호자 실명인증 동의를 얻어 기부한 최연소 기부자이기도 하다.

특히 김태연양은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를 위한 ‘배려부안 U-too’ 영상물에 출연하는 등 기부 동참 유도를 위해 앞장섰다.

김태연양은 지난 2021년 미스트롯에 출연해 가수 장윤정의 ‘비밀길’을 불러 미스트롯·미스터트롯을 통틀어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다.

또 ‘범 내려온다’를 완벽하게 불러 ‘아기호랑이’라는 애칭을 얻으면서 부안을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알렸으며 지난 2021년부터 부안군 관광홍보대사

로 활동 중이다.

김태연양은 “부안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며 “앞으로도 부안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돌려받는 제도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각종 기상재해·풍수해 보험료 지원

정읍시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설·강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정읍시, 각종 기상재해·풍수해 보험료 지원

정읍시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설·강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권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가입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총 보험료의 70% 이상(최대 100%) 개인 부담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해 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다.

가입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 부담 보험료(총 보험료의 0%~30%)만 납부하면 된다.

가입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꿀 생산 장비 지원... 양봉산업 집중 육성

정읍시가 지역 양봉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양봉 사양 도모에 나선다.

정읍시가 지역 양봉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양봉 사양 도모에 나선다.

시는 이상기후와 밀원 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양봉 기자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7억3,100만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시는 월동 꿀벌 피해 방지를 위해 ‘월동 꿀벌 실종 및 폐사 방지’ 교육을 진행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양봉 기술력을 높여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과 유통 투명성 향상을 도와 위기에 처한 양봉산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다.

또 월동 꿀벌 피해 대책반을 구성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 이상 징후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양봉인 전국대회

지원에 2억5,000만원, 화분(꽃가꾸) 지원에 2억300만원, 소초관(인공 꿀벌 집) 등 양봉 기자제에 2억2,000만원, 꿀벌 퇴치 장비 등 꿀 생산 장비에 5,800만원을 지원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